

문화

▶ 1면에서 이어짐

공동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이점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팀은 주민조직화 단계에 가장 큰 공을 쏟았다. 사업팀은 까다로운 선발절차를 통해 9개의 생산자 소그룹을 선정했다. 각 소그룹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룹별 기본 규칙을 정해 협약을 맺게 했다. 또한 커피의 품질을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소그룹 대표자를 구성원들이 투표로 선출하게 했다. 이 생산자소그룹 구성 사업을 통해 총 9개의 소그룹이 결성됐다. 이들은 일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운영방식에 대해 토론했다. 이에 대해 손 센터장은 “모든 활동은 소그룹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발적 참여로 운영됐기에 주민들의 조직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직된 소그룹은 농가에서 ‘레드체리’라고 불리는 커피 열매를 수확해, 직접 지은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1차 가공을 거쳤다. 1차 가공이란 레드체리의 외과피를 한 겹 벗겨내 이를 세척하고 건조하는 단계이다. 이 상태의 커피를 ‘파치먼트’라 부른다. 파치먼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콩에 얇은 외과피가 감싸진 형태이다. 이 상태의 커피는 풍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저장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사업팀이 전개한 활동은 ‘주민역량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교육’이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소그룹 운영방식과 민주적 의사결정방법, 그리고 소득분배 방법을 교육했다. 손 센터장은 “동티모르 주민들이 오랜 식민지 시절과 내란을 겪은 탓인지, 아직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신뢰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불리 협동조합을 조직해주기 보다는 훗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팀은 주민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커피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커피공정무역사업이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지의 과정을 가르쳤다. 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피스커피 사업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손 센터장의 설명이다.

주민교육을 실시한 이후 사업팀은 각 소그룹이 1차 가공한 커피 파치먼트를 2차 가공하기 위한 그린빈 가공장을 세웠다. 이 그린빈 가공장에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원두를 생산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한다.

또한 사업팀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해 독티모르에 마련한 사회적 비고託치에



피스커피 사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사업을 이양하고,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출구전략을 실시한 보기 드문 사례다.

도 앞장섰다. 사업팀은 ‘카페 피스커피’를 설립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한 그동안 커피 생산자에 머무르던 지역 주민들도 카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카페 피스커피는 ‘공간을 통한 청년 문화 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이 제공하고, 다양한 세미나와 특강을 수시로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했다. 손 센터장은 “초기 고객들은 외국인들뿐이었지만 점점 주변의 관공서 직원들과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찾아왔다”며 “독티모르의

- ① 잘 익은 커피 체리를 고르는 소그룹 구성원들
 - ②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로또뚜 주민
 - ③ 1차 가공을 위해 골라낸 커피 체리를 세척하는 모슬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자국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보람됐다”고 말했다. 딜리 그린빈 가공장과 카페 피스카피는 ‘사회적기업 피스카피’로서 동티모르에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가져다주었으며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와 YMCA가 공동 추진한 피스카피 사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해나가는 의지를 지니다.

근 2년 동안의 피스커피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와 YMCA는 사메 지역 주민들에게 피스커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생산자 소그룹으로 활동한 주민들은 피스커피 사업에 참여한 이후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그룹 구성원들 간의 협동심과 자발성이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으며, 소그룹에 참여한 이후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 대소사에 앞장 설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의 실무를 배웠으며 협동과 신뢰에 바탕을 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파치먼트 가공방법이나 커피 품질관리 등의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놀라운 점은 소그룹의 일원으로서 피스커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주민들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소그룹 구성원 이외의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업팀은 딜리 사회적기업과 카페 피스 커피 직원들에게도 피스커피 사업기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직원들은 사회적기업 피스커피가 최저임금, 연금, 퇴직금, 휴가 혜택을 보장해주는 좋은 일자리라고 칭찬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기업 피스커피가 지속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고, 피스커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피스커피는 직원들에게 바리스타 교육,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손 센터장은 2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지금에도, 동고동락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진정 어린 애정을 표했다. 그는 이 사업이 주민들 내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오래 남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후 사회적기업 피스커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커피 사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사업을 이양하고,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출구전략을 실시한 보기 드문 사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동티모르의 빈곤이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또한 동티모르 내에 카페 문화가 정착되고, 이 공간에서 청년들 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참여가 확발해지길 바란다.”

2015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2015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6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7회 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 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접수일시	2015년 10월 15일(목) ~ 11월 17일(화) 17:00
대상	교수, 교직원, 개인 및 단체
시상분야	교육, 연구, 실천(3개 부문)
시상인원	분야별 약간 명
추천방법	공적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방문 :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홍보실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홍보실 3. E-mail : pr@khu.ac.kr
선정절차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수여식	2015년 12월 중 <i>(Magnolia 2015-1부 목련회의) 시 시상</i>
문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2~6

대외협력처

2015 무용학부 창작공연



Young Choreographer's **Dance** Project

■ 일시 | 2015.11.17(Tue.), 18(Wed.) 5pm
■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큐직을 (102호)
■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 후원 | 무용학부, 47대 학생회, 문화아이템프로리제

